



청소년 문제와 교회의 역할

6 김승욱(발행인)

오늘날의 청년문제는 사회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도 있습니다. 기계화와 자동화로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므로 은퇴시기가 늦추어져,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기업의 일이므로, 교회는 아무런 할 일이 없을까요?

I.

가족(3월), 어머니(4월), 아버지(5월)에 이어서 이번 6월호에서는 “청소년”을 특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보내면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취직, 결혼, 내 집 마련, 손자 양육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 문제만 해도 혼수비용이 크게 늘어 자신이 모은 돈으로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 정보업체에 의하면, 신혼방 꾸미는 것까지 포함하면 평균 결혼비용이 2억 808만 원이 나 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빚을 내서 결혼하는 가정도 전체의 40% 이상 됩니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요즘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엄마가 자녀양육에 진념하던 과거보다 더 힘들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부모 집에 얹혀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세대는 손자 봐주는 라고 심신이 실 날이 없습니다. 행복가족상담센터에 의하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기혼자 가구는 2000년 13만 8천여 가구에서 2011년 말에는 약 16만 가구로 15.9%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모가 재력을 갖춘 고학력일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서, 대졸 이상은 54.7%나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2011년 60세 이상 기준).

그래도 취업하고 결혼까지 한 자라는 효과입니다. 실업상태의 청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 부 발표 청년실업률은 8.5%(2011년 기준)이지만, 실체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뉴스토마토'가 국가 통계 포털시스템을 근거로 아르바이트,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해서 실업률을 구해보니, 27.1%나 된다고 합니다(2011년). 실업자 32만 9천 명에 단시간 취업자 52만 3천 명, 취업 준비자 8만 8천 명 등을 합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466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는 것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청소년 취업률이 10년 전의 절반에 불과하고, 플터임은 물론 파트타임도 잠기 어렵다고 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으니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 얹혀사는 자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청년(15~34세) 중에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포기한 소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숫자가 2003년의 75만 천명에서 작년에는 100만 8천 명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학벌이 높아서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음에도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미루고 있는 '깡겨루족'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된 일본은 깡겨루족이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퇴자마저 빨리 고갈되어, 청년실업 문제는 고령층의 은퇴생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립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일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청년문제의 많은 부분이 마을에서 비롯됩니다. 구조적인 원인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마을에서 비롯되는 것은 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시대적 변화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청소년 문제 해결에 교회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I.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이 만연했으므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급하는 오늘날에는 일시적 끼니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문제는 사회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도 있습니다. 기계화와 자동화로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아가 들어도 건강하므로 은퇴시기가 늦추어져,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기업의 일이므로, 교회는 아무런 할 일이 없을까요?

저는 교회도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근로자는 일자리 나누는 일에 동의해야 합니다. 교회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청년 중에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포기한 소위 '니트족 숫자가

2003년의 75만 천명에서 작년에는 100만 8천 명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학벌이 높아서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음에도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미루고 있는 '깡겨루족'도 많이 늘었습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D(경제학 석사), 경제개혁위원회, 현재 경제제도혁신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정책전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포럼의 실행위원장.